



외국인 투자 바닥... 탈출구 어디에

올 상반기 직접투자액 7400만달러... 5년 전 10% 수준 제주, 2014년부터 10억달러 넘어서다 2년 연속 '급락'

올 들어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10년 평균 실적치를 웃돌며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제주지역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갈수록 고전을 면치 못하며 바닥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신고액은 98억7000만달러(약 11조60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37.3%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45.2% 감소한 56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다만 이번 실적은 신고와 도착 기준 모두 10년 평균 실적치(각각 84억5000만달러, 52억2000만달러)를 웃돌아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지자체별로는 수도권이 63.9%로 10억9000만달러(신고기준)로 6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인 경

우 7400만달러로, 현재 환율로 따지면 88억여원으로 100억원을 밑돌고 있다. 1004만달러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정도 줄어든 규모다. 5년 전인 2014년 당시 7억9300만달러의 10%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보다 앞서 연도별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실적을 살펴보면 2014년 7억9300만달러에서 2015년 2억100만달러, 2016년 6억2900만달러, 2017년 4억47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연간 10억달러를 넘어섰던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실적은 5년간의 호황기를 지난 지난해부터 바닥을 치고 있다. 연도별 투자 유치실적(신고기준)은 2014년 10억9000만달러, 2015년 13억9000만달러, 2016년 10억100만달러, 2017년 10억8900만달러에서 지난해

2억7800만달러로 감소했다. 제주지역에 대해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외국인의 발걸음이 끊긴 거나 다름 없는 셈이다.

제주지역 외국인 직접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는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각종 프로젝트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게다가 제주도가 신규 대규모 개발 사업 유치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기존 개발 사업 정상화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정한 가운데 IT와 BT 등 신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카지노 및 관광부문을 제외하면 외국인 투자자를 유인할 만한 매력과 우위점이 적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조성윤기자 sycho@ihalla.com



단호박 수확 구슬땀 11일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한 농경지에서 농민들이 단호박 수확 작업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건설경기 침체에 업계 휘청... 대책 시급”

도의회-건설협회 간담회 경기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생활형 SOC 투자 확대 등 협회 측 경기 회복책 건의

최근 도내 건설경기 침체 속 건설업체가 어려움을 호소하며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형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관계자와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등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도내 건설업체

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박원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장태범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회장을 비롯해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대한건설협회 임원 등 20여 명과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 등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최근 건설경기 선형지수인 건설수주액이 감소하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호소했다. 도회에 따르면 2018년도 말 기준 건설수주액은 2016년 대비 52% 감소했으며, 올 5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은 1126호에 이른다. 특히 공사 발주규모의 대형화로 타지역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독점이 지속돼

지역 향토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는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으로 생활형 SOC 및 노후 인프라 투자 확대, 제주광역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자체(제주도) 발주,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공기연장 및 간접비 보상, 등을 건의했다.

박원철 위원장은 “최근 심각한 건설경기 침체는 도내 민생 경제에도 악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도 차원의 관급공사 확대, 주택가 상하수도 공사 등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계약 심사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건설업체도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지속가능한 투자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혁신 더해 제주 창업생태계 키우자”

대표 클라우드펀딩 업체 제주테크노파크와 협약 사업화모델 발굴 등 협력

제주의 혁신창업 생태계를 키우기 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클라우드펀딩 업체 와디즈(주)와 제주 대표 경제혁신 지원기관인 제주테크노파크가 손을 잡았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제주TP)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우리나라 클라우드펀딩 1위 업체인 와디즈(Wadiz, 대표 신혜성)와 제주도내 혁신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와 시장진출 지원을 위해 10일

오션스위츠 제주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이날 협약을 통해 서로의 인적, 물적 보유역량과 클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활용해 제주기업들이 보유한 창업 아이템을 함께 발굴하고 성공적인 시장진출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TP는 앞으로 제주의 우수 아이템의 발굴과 지원, 제주창업기업의 모집 및 사업화지원, 입주공간 지원과 그밖에 제주지역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등 관련정책과 추진사업을 와디즈와 연계해 협력하게 된다.

와디즈(주)는 우수 창업아이템 발굴과 와디즈 플랫폼을 연계한 온로드(On-Load) 지원과 연계 프로그

램 및 홍보교육 지원, 발굴한 창업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등 창업 아이템의 발굴과 성장 및 후속투자 등에 대해 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한다.

특히 올해 제주도가 신규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지원 사업’을 통한 도내 우수 창업아이템과 사업화 모델 발굴, 시장진입을 위한 홍보 등과 관련 전략적 차원에서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와디즈(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지분투자형 클라우드펀딩 회사로 2012년 설립돼 4차산업 관련 기업은 물론 문화콘텐츠 투자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펀딩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조성윤기자

반려견 등록 안하면 과태료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월 31일까지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늘어나고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다.

제주도는 사업 기간 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등록동물의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미등록시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밖에 동물등록·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도내 동물병원 등 동물등록대행기관 50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제주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료다.

제주도는 신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월부터 미등록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소진기자

단골민원은 ‘도로개설·교통난·침수’

서귀포 주민건의 추진 보고

서귀포시민들의 단골민원은 도로·주차장 확충, 교통난 해소,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해소대책 등 생활과 밀접한 사항들로 나타났다.

서귀포시는 10일 양용경시장 주재로 취임 후 주민건의 대화대 건의된 1037건의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2분기 주민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양 시장 취임 직후인 작년 9월 17개 읍면동 순회방문과 현재까지 진

행중인 마을 방문, 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은 모두 1037건이다. 이 중 397건의 건의사항을 완료했고, 302건은 추진중이다. 또 향후 추진 136건, 검토중 100건, 수용불가 102건으로 분류됐다.

주요 건의사항은 안전과 도로, 교통, 주차장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인프라 구축 관련이 479건(46.2%)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 개설·확포장, 인도 개설, 주차장·도로 시설물 확충, 202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

제 관련 추진상황, 교통위험지역 개선, 버스노선·시간표 조정, 주정차 단속유예 등이다. 특히 작년과 올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농경지와 주택 침수가 자주 발생하면서 배수로 공사에 대한 주민건의도 급증했다.

건의사항 중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 근거 없는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및 단체의 영리목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인건비 지원 등) 등 도조레나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사항들이었다.

시는 주민대화에서 나온 모든 건의사항에 대해 건의사항 관리시스템을 통한 철저한 관리와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문미숙기자

(주)제주칸트리구락부 (제주C.C) 기업회생 인가(M&A)에 동의합니다.

▶ **서울회생법원에서의 기업회생 사전 진행**

제주CC 최대 담보채권자 한프이앤씨유한회사가 2019. 3. 신청한 기업회생 사건이 재판부에 의하여 이른바 P플랜(신속처리 절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운영위에서는 6월 초 위 기업회생절차 개시 회원동의를 취함하여 법원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 **회원보상비용의 타결**

M&A희망사인 한프는 회원보상비용을 재판부 면전에서 인회금의 50%를 (현금20%즉시지급 + 20%3년3회분할지급 + 10% 이용권지급)제시하였고 이 보상비용은 사실상 유례가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회원운영위에서는 다시 협상을 계속하여 현금30% 즉시지급+20% 이용권 지급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이용권도 가격이 소진될 때까지 기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약정을 받았습니다.

▶ **2019.7.20.까지 회생계획안(사전계획안)에 대한 동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회원운영위에서는 회원 여러분께 동서서 양식과 함께 간략한 설명서를 우편송부합니다. 우편물을 받지 못한 회원은 제주벤처마루 606호 운영위 임시사무실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64-759-8091

제주칸트리구락부 회원운영위원회 위원 일동
대표 위원장 박근식 배상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동행" 대원 모집

산사나이 오희준은 히말라야 8,000m 10좌를 한번의 실패도 없이 등정했으며, 남북극점까지 횡단하면서 세계 산악인으로서 대한민국을 알렸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도전정신을 남기고 간 오희준님은 지금도 히말라야의 품에서 아직도 도전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산악인 오희준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21일(일) 08:00
장소 · 야구장 앞 시계탑 집결
· 서귀포점 : 08시 토평동 오희준 추모공원 집결

•인 원:선착순 40명
•비 용:10,000원(교통비및 산악보험)
동행 351-1060-7931-53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등산교실
•준비물 :도시락, 식수 및 산행에 필요한 모든 장비
•산행코스:케를-상장길-정자내-노고메술길-케를

산악인 오희준 그는 누구인가?

1970년 8월 16일생 1989년 2월 서귀포등학교 졸업
1989년 3월 제주대학교 입학, 제대 상무(8.201m)등정
1992년 8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초호화(8.201m)등정
2000년 7월 30일 파카스틴 히말라야 보르드르(8.047m)등정
2000년 10월 29일 파카스틴 히말라야 보르드르(8.031m)등정
2001년 4월 29일 내할 히말라야 로제(8.516m)등정
2001년 7월 22일 파카스틴 히말라야 K2(8.611m)등정
2002년 5월 4일 내할 히말라야 안나푸르네(8.091m)등정
2004년 1월 12일 남극권2정 44일간 세계최단기록 성공
2005년 5월 1일 54일간 도보로 북극점 도달
2006년 5월 11일 내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8.848m)등정
2006년 7월 5일 파카스틴 히말라야 가시브르 1봉(8.068m)등정
2006년 7월 31일 파카스틴 히말라야 가시브르 2봉(8.035m)등정
2006년 9월 20일 내할 히말라야 마나슬루(8.156m)등정
2007년 베링해협 횡단
2007년 5월 16일 에베레스트 남서쪽 코리안루트 개척중 캠프4지점인 7,700m 지점에서 "산사나이 하늘을 오르다"
2008년 9월 30일 체육공정 명예장수훈(체육공정 명예장수 제51호)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이사장 한 학봉
연락처: 사산악인오희준기념사업회 사무국장(010-9838-9552)

중국어평문공립 하얼빈이공대학교 입학설명회

★ **중국어 HSK 등급없이 본과 입학**

하얼빈 이공대학교는 중국 헤이룽장성(黑龍江) 성 하얼빈에 있는 공립 공업대학으로, 헤이룽장 성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이다. 1950년대 초에 세워진 하얼빈 이공대학교는 오늘날 공학뿐 아니라 경제학, 경영학, 인문학, 법학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학으로 발돋움하였다. 미국의 트로이 주립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영국의 런던 대학교를 비롯해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제주대학교 등 10여개 국가 대학 및 연구소들과 자매결연을 맺고 학술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일시: 2019년 7월 20일토요일 오후 2시**
▶ **장소: 제주 퍼시픽호텔(제주시 서사로 20)**
▶ **강사: 진하얼빈이공대학교 국제문화교육학원 한국학생입학교육 배상교 교수**
▶ **추천학과: 해외학과**

♣ **하얼빈이공대학교 장점**
- 중국어 집중교육으로 졸업 후 취업경쟁력 제고
- 예비과정 없이 4년제 본과 입학으로 유학기간 1년 이상 단축
- 수능성적이나 중국어 등급사실인 HSK등급 취득 없이 입학 가능
-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포함한 총 유학비용이 국내 사립대 등록금 수준
- 중국 최고의 표준어를 사용하는 하얼빈에 위치한 동북지역 최대 국립대학
- 철저한 학사관리를 자랑하는 중국교육부 선정 우수 명문대학교
- 중국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기숙사동 학생 편의시설과 환경

참가신청대상 :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생소지자로 학부모, 대학생, 일반인 모두 가능

♣ **입학설명회 참가신청: 전화 및 방문 신청**

제주 입학 대행처: 동남유학
☎ 064-745-3666, 010-2691-24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효은빌딩 5층

김영민의 노래교실 여름특강

기간 2019년 7월 17일 ~ 8월 16일 (각반5주)

모집인원
•남성 전용반 - 20명
•여성 전용반 - 20명

강의시간
•남자반 : 매주 수요일 저녁 7:30~9:00 (7월17, 24, 31, 8월7, 14일)
•여자반 : 매주 목요일 저녁 7:30~9:00 (7월18, 25, 8월1, 8, 15일)

강의료 · 각반 공통 10만원

접수 · 전화 접수
• 농협 352-0560-9972-63으로 입금 후 전화 혹은 문자 주시면 접수 처리합니다.
• 현장접수 : 개강 당일 현장에서 접수 및 강의

장소
· 버드랜드 뮤직센터(동문로 10길 2, 지하 1층)

| 주최·주관 | 사단법인) 한국가요강사협회 제주지회

문의 : T. 064)702-3040